

자율과 화합으로 무진년을...



전 동 응
(대한양돈협회 회장)

친애하는 전국의 30만 양돈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돈업계를 항상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관계 기관과 관련업계의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축복 받으시고 가정에 평화와 영광이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여러가지로 어렵고 바쁜 생활속에서도 우리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87년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면서 행과 불행이 교차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땀흘려 키워놓은 생산물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락되어 양돈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외적으로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으로 일부 축산물의 시장이 개방되어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 더욱 시급함을 절감케도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우리 양돈인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양돈회관을 건립하여 대내외에 양돈인들의 단합된 의지와 저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79년도 이후 거의 중단 상태에 있던 돼지고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돈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전국의 30만 양돈농가가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쳤기 때문이며, 또한 양돈인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8년도의 양돈업계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매우 큰 폭의 불

황이 명약관화시 되고 있어 양돈인들의 자율적인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양돈불황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양돈불황의 늪에 빠진다면 그 늪은 깊고 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양돈인들은 지난해 전국 양돈인 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번식돈의 감축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돈육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 등의 결의 내용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나갈 때 양돈산업은 기필코 안정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본회의 역점사업을 분명히 밝히면서 30만 양돈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돈육의 수요개발과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본회는 양돈산업의 유통개선과 가격안정, 수요개발 등 산업발전을 주도할 자조금 제도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세째, 본회는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장애되는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의 대정부 활동에 최대한 매진할 방침입니다.

네째, 본회는 종돈개량의 가속화를 위한 제2의 종돈능력검정소 설립을 추진하여 돼지 검정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본회는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생산자 공영의 도매시장 개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섯째, 본회는 양돈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양돈인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으로 화합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30만 양돈인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에 잘 순응하는 양돈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 바람과 더운 바람이 엇갈리는 냉혹한 현실속에서는 오직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길만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첩경임을 다같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어려움도 전 양돈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밝은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양돈 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동안 저에게 훈훈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지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쓰자



김광희 국장
(농림수산부 축산국)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 양돈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의 출발에 앞서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임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양돈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오신 전국의 양돈인과 양돈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식생활 구조도 곡류중심에서 탈피하여 육류 등 축산물 소비의 증가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국가경제성장과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에 힘입어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양돈업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우리 모두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 오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농어가의 주요소득원으로 그 위치를 굳혀 가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체 육류 소비면에서 절반 이상이 넘는 6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농축산물의 수출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양돈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84년이래 계속되어 온 양돈호황과 이에 따른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난 11월 들어 돼지값이 크게 하락하여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였으며,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돈불황을 미리 예견하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감축하여 주실 것을 전국의 양돈농가에 호소하는 한편, 등록·허가업체에 대하여는 사육감축조치를 취하였으며, 대규모 허가업체에 대하여 수출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부업양돈농가를 보호하는데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정부가 도매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지육을 수매함과 동시에 산지에서 생돈수매를 착수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돈불황은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의 자발적이면서도 과감한 사육두수의 감축, 비육돈의 분산조기 출하를 통한 돼지고기 생산감축, 돼지고기의 소비촉진홍보 등에 다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원활한 돼지고기 수급으로 가격안정이 유지되어 우리 양돈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한 뜻깊은 한해였으며, 새해에도 우리 양돈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째, 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도

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도모하여 국내수요에 적절한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양돈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둘 째, 양돈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돼지고기는 타육류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어 '84년 이후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한편, 돈육가공품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국제교역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 째, 돼지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우리 양돈 분야가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도 돼지개량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선진국의 우수종돈 수입, 국내 종돈 능력검정 등을 통하여 돼지 능력을 향상시켜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째,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도모

양돈 농가가 안정적인 양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양관리 등 경영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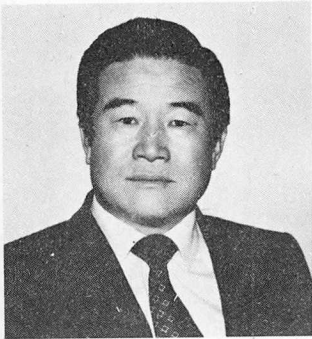
다섯째,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강화

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연계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돼지고기 소비구조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돈농가는 물론, 양돈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합심 노력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양돈농가와 양돈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양돈인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 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자세를 갖자



김 영 진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해, 새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맞는 이 한 해는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보나 참으로 값지고 뜻깊은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극심한 산고 끝에 참다운 민주정부가 태어나고,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오는 4월 1일로 연구원 설립 첫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오는 10년의 도약을 다시 시작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참으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논의와 6월의 민주화운동에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가능케 하였던 6.29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발전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노사분규는 지난 7~8월을 더욱 무덥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겪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처리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오늘 찬란한 새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농정은 차분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조원의 공급융을 풀어 농어촌의 고리공채를 대환해 주는 것을 비롯, 각종 농수산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83~84년에 푼 소 입식자금의 금리는 탕감해 주도록 한 3월 16일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는 7~8월 두 차례의 태풍과 7차례의 집중호우가 몰아치는 엄청난 기상 재해가 있었지만, 농민들과 농수산 공직자들이 밤잠을 잊고 애쓴 보람이 있어 예상을 뒤엎고 3, 814만섬의 쌀을 수확, 86년보다는 79만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7년간의 평균 생산 3,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의 대응전략, 지역개발 및 농가경제
개선, 농업금융제도 개선 등 농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에 주력해야

732만섬 보다는 82만섬이 많은 7년 연속풍작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 숫자라는 마지노선을 과감히 무너뜨리면서 추곡수매 가격을 전년보다 총 14%나 인상하였던 바, 이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온갖 재해에 힘겹게 싸워 이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87년에도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등 주요 농정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36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연구, 28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힘겨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 농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이라는 험한 파도가 계속 몰아쳐오고 대내적으로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불안정이라는 암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의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농어가 부채문제와 소득증대 문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로서도 농정의 주안점으로 삼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응전략, 지역농업 개발 및 농가경제 개선, 농업금융제도 개선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28개 조사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어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대변기관으로서 가일층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올 1년 동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욕구가 분출할 것이며, 농어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단체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 능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농업정책연구에 뜻을 둔 이상 우리는 1천만 농어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연구한다는 확고한 자세와 높은 긍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